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 이 필수

울지대학병원 김덕기 과장

취재 · 사진 | 김성대 기자(glsu002@safety.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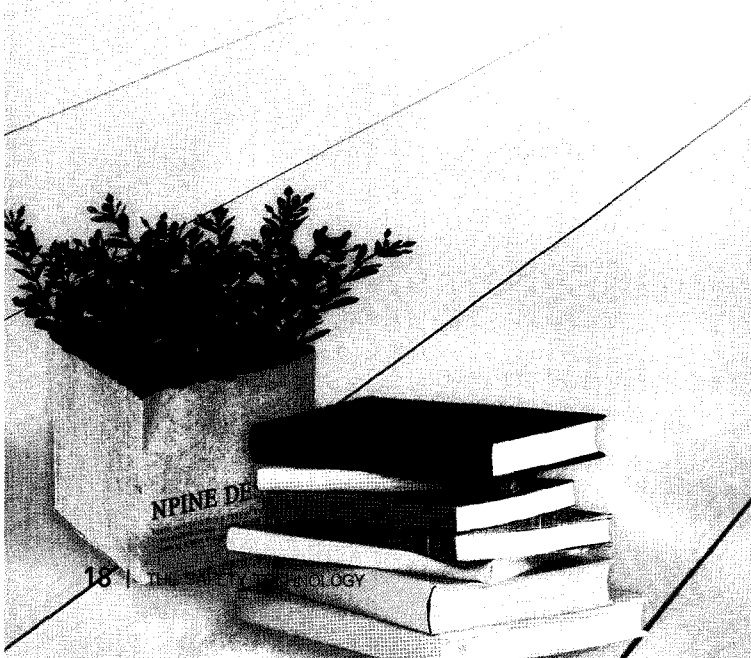


대전울지대학병원은 지난 2004년 의료 지방화 시대를 선도한다는 기치 아래 중부권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지금의 대전시 둔산동으로 이전, 개원을 했다.

이후 서울의 유명 병원 못지않은 최첨단 장비와 화려한 의료진을 내세워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펼쳤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대전지역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기까지 했다.

이는 당연히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추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 이면엔 우수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원활한 지원을 펼친 이들이 있었다. 바로 이곳의 시설안전담당자들이다.

25년의 안전 내공으로 대전울지대학병원을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이끈 김덕기 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안전과 함께한 25년의 삶

김택기 과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안전관리업무와 공무업무를 함께 맡아 지금까지 이들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장장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안전과 함께 해온 것이다. 가히 안전달인이라 칭할 만하다.

사내에서 남다른 부지런함으로 유명했던 그는 안전과 공무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파고들었다.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안전과 공무업무를 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신념하에 에너지관리, 가스안전관리 등 많은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며, 설비의 효율적인 공정개선은 물론 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듯 그는 병원 모든 구성원의 안전 생활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했고, 이런 역량을 인정받아 표창도 수차례 받았다.

모두가 안전지킴이

“근무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면 차츰 위험의 인지성이 희미해집니다. 즉 안전불감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늘 병원의 모든 이들이 ‘안전’이라는 의미를 머리와 가슴 속에 소중한 가치로 새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활동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김 과장이 답한 말이다. 김 과장은 병원 모든 이들의 행동에 안전이 녹아들길 꿈꾼다. 때문에 그는 늘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같이 일을 하는 팀원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매진해 줄 것을 더욱 당부한다.

안전에 또 안전을 더하라

병원에서 생각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란 환자를 상해 또는 상해가 가능한 상태에서부터 보호하고 열과 냉, 기계·화학적, 세균적, 심리적 등의 위험요인이 모두 제거된 상태를 말한다. 김 과장은 이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늘 관찰과 실천을 멈추지 않는다. 먼저 환자관리면에선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병원사용에 대한 안전지킴 등을 교육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또 병원관계자들과 관련해서는 환자 운반 중 낙상, 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림, 치료도중 발생하는 화학적 화상 등의 사고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개선이나 보호장구 지급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 시설과 기구관리면을 살펴보면, 복도에는 모두 난간을 설치해놓은 것은 물론 물기가 있거나 왁스칠을 했을 경우 넘어짐 사고 방지차원에서 철저히 ‘미끄럼 주의’ 표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유리바늘과 같은 예리한 끝을 가진 기구의 파손품은 철저히 특별용기에 별도 처리하게끔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병원 곳곳에는 그의 철두철미한 안전관리를 엿보게 하는 것이 많다. 대표적으로 현재 이곳에 설치되어있는 에스컬레이터는 법적으로 아무하자가 없다. 현대 김 과장은 1%의 위험요인도 제거하겠다는 마음에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속도를 낮추고자 하고있다.

안전·보건 라운딩제도

김 과장이 입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안전문화의 형성이다. 꾸준한 노력 끝에 이제 어느 정도 문화가 자리를 잡았지만, 그는 조금도 지세를 늦추려 하지 않는다. 하루에도 수백명이 드나드는 병원의 특성상 긴장의 끈을 조금만 느슨히 해도 금세 공동 탑이 무너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그는 ‘안전·보건 라운딩제도’를 자체적으로 고안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매주 3회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 각 층의 부서장들이 업무구역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통해 지적된 위험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를 거쳐 100%로 개선하고 있다.

건강과 안전 모두를 드릴 것

그의 향후 목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병원의 안전활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의 작은 환자들도 건강을 되찾아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치지 않게끔 안전의식도 가지고 가질 소망한다. 그래야 진정한 병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그는 환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라운딩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의 노력으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이라는 선물 모두를 받아갈 희망해본다. ☺

